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4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니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침략의 날”을 준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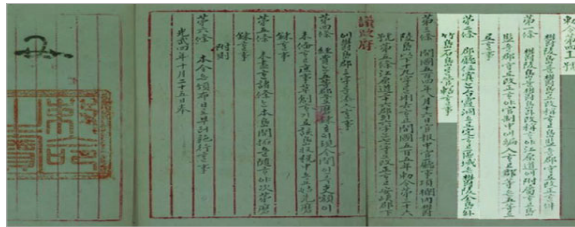


나홍주
(홍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구한말에, 일본인들이 불개항장인 ‘울릉도 및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몰려들자, 조정은 1900년에 우용정(내무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국제현지조사단 (일본영사 아카쓰카, 경부 와다나베 및 영국인 E. Laporte를 포함)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1900.5.31. 현지에 도착한 조사단은 1주일간 현지조사 끝에 144명의 일본인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근대국제법의 요건을 갖추어, ‘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다’는 명문규정을 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1900.10.25.)를 반포하고, 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하였으나 어떤 공사관으로부터의 이의도 없었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이 국제법상 재 완성된 것이다(1699.1월 이후). 이것이 우리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독도침략의 날”로 호칭하는 이유이다. **항간의 말대로, “독도의 날”로 부른다면, 상기 국제법적 내역이 가려지고 만다.** ‘독도’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2006년 제정한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와 같은 상기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허구의 “00 날”에 불과하다. 결코 이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끝-

나홍주 (홍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10월25일을 “독도침략의 날” 이라고 불러야 한다. “독도의 날” 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고 하는 말도 있는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사전에 오빠를 검색하면 남편이라고 나올 것이다. “독도침략의 날”은 독도단체대표자회의의 에서 전원이 찬성 한 것이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후원금 주신 분

윤선애	부산시동래구온천동반도보라A	5,000원
이××	부산시동래구사직2동삼정A	20,000원

日정부 ‘독도는 일본땅’ 자료 영어 사이트 개설

입력 : 2016.05.04 17:17 | 수정 : 2016.05.04 17:17



▲사진=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특설 사이트를 개설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특설 사이트를 개설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공개했다.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제도에 관한 자료의 번역본도 공개됐다. 독도와 센카쿠 관련 자료는 총 200여 점에 이른다. 번역된 자료들은 해외 논문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본 정부는 이 자료들을 오키나와 및 시마네 공문서관 등에서 찾아내 공개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해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순차적으로 독도와 센카쿠가 자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 750점을 더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은 독도를 뺏기 위하여 국제적 홍보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단체가 홍보하는 것도 국영기업체가 못 하게 하고 정부가 막으니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독도 이상훈

일본 군함 ‘욱일기’ 달고 진해 입항 논란

등록 : 2016-05-25 11:56수정 : 2016-05-25 18:45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 연합뉴스

옛 군국주의 상징... 해군 “욱일기 게양 막을 방법 없다”

일본 함정들이 24일 해상자위대의 군기 ‘욱일승천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욱일승천기는 옛 군국주의의 상징이어서 일제의 한반도 침탈 역사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25일 “일본 구조함인 지요다(3650t)함과 잠수함인 사치시요(2750t)함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남해상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Pacific Reach 2016)에 참가하려고 전날(24일) 오전 진해항에 입항했다”고 말했다. 이들 해상자위대 함정은 입항 당시 함수에는 일본기를, 함미에는 욱일승천기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함정이 참여하는 훈련은 잠수함 조난 사고에 대비한 훈련으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 해군 함정이 참여한다. 욱일승천기는 메이지 시절 일본군의 군기로 채택돼,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반도 병탄,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상징해 왔다. 욱일기는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군대가 해체되며 사용이 금지됐으나, 자위대가 창설된 뒤 되살아났다. 옛 일본 군대의 욱일승천기는 가운데 태양에서 밖으로 퍼지는 광선이 16개였으나, 육상자위대는 이를 수정해 8개로 줄였다. 그러나 해상자위대는 과거의 16개 광선을 그대로 채택했다. 이런 차이는 육상 자위대의 경우 옛 일본군 출신의 참여를 배제한 반면, 해상 자위대엔 옛 일본 해군 출신 인사들의 참여가 허용된 사정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욱일승

독도 땅값 50억563만원

지난해보다 17%↑...모두 국유지 독도의 땅값은 얼마나 할까?

31일 경북도가 조사 발표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둔 독도의 면적은 모두 101필지에 18만7554㎡다. 섬 전체의 땅값인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50억563만원으로, 지난해 42억7303만원에 견줘 17.2%인 7억3260원이 올랐다. 독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독도리 27 동도 선착장 자리다. 이곳은 1㎡에 98만원으로 조사됐고, 땅값이 가장 싼 곳은 독도리 30 임야로 1㎡에 2100원이다. 독도는 국유지여서 사고팔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경북도가 2000년부터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 독도에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15년째 독도의 땅값이 해마다 15~20%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천기를 단 일본 군함의 국내 항구 입항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군함이 과거 한반도 침탈 등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로 간주된다. 항구에 들어갈 때 자국기와 자국군기를 다는 것은 관례”라며 일본 함정의 욱일승천기 게양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우리도 외국 항구에 들어갈 때 태극기를 달고 가는데 일본만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본 함정들이 그동안 우리 항구에 10여 차례 입항했는데 그때마다 매년 욱일기를 달고 왔다”고 말했다. 애초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 함정들은 이번 훈련 마지막날인 3일엔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해 폐막식 행사 등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입항 문제가 논란을 빚자 계획을 바꿨다. 해군은 25일 오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군은 이번 훈련의 사후 강평 및 폐막식 행사를 사후강평의 여건,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주 민군복합항에서 진해군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을 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 전시물과 홍보하는 햄 독도사랑회 회원들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문	고문	고문	고문	자문	자문	홍보대사	회장	부회장
최정현원장	김영구교수	황성일회장	장현섭	박현옥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여사	문병준교수	임기병교수	가수 서희	독도이상훈	김영희
홍보위원장	부산지회장	울산지회장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충북지회장	인천지회장	성남지부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배우 나기찬	박대희	정중수	한채훈	장태현사장	한명석소장	김상열	신한호	백미경	김석순회장	권정학	김선용본부장

알림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 독도척령41호 제정 동월 27일 반포 한 것은 국제 법으로 대한제국 땅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 독도NGO포럼(독도단체장회의) 10월25일을 “독도 칙령 의 날” 국회에서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부산은 여러 독도단체들이 10월25일 2시경에 초랑동 정발장군 동상에서 할 예정이다. 현수막은 최소 일주일 전에 정발장군 동상 주변에 붙일 것입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사수연합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9편



이런 방안들만이 「조용한 대응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한국의영토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안들은 더 이상 천연(遷延)되면 안 되는 것들이다.

6. 일본의 일방적인 ICJ 제소 시 절차법적 대응 준비 가. ICJ에 대한 대응 조치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에 유엔 안보리 등이 개입하게 하는 데에 성공하고 여세를 몰아서 독도문제를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 하는 단계에 오면, 한국정부는; a. ICJ 서기국의 보도자료에 한국의 입장을 등재하는 것. b. 안보리에 대한 성명서 c. 일본 정부에 대한 note verbale. 등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① 일본의 일방적 소송제기로 인한 ICJ의 재판관할권 성립을 원초적으로 부인한다. ②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도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 한다. ③ 선결적 항변을 제기 한다. ④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임을 전제로 일본의 소송제기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각종 외교 경로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적한다.

나. 한국 측 대응을 위한 고려 사항

(1) 절차법적 고려 사항

‘확대관할권 제도’는 1978년 재판소 규칙 제38조 5항이 채택되기 이전의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규범적 내용을 갖고 있다. 1978년 재판소 규칙 제38조 5항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일방적인 소송 신청이 ICJ에 접수되면 그 것만으로 제소 된 사건은 사건 총명부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규칙 제38조 5항은 일방적으로 제소된 사건이 사건 총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제

소 국가가 제정 사건의 제소를 위해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동의해야만 하는 것을 조건부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어떤 국가가 분쟁 사건을 부당한 정치의도에 악용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며 일방적 제소가 부적절하게 공시되어 자기가 재판관할권을 동의하지도 않은 국가가 부당하게 제소되어 곤혹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1978년 개정된 규칙 38조 5항은 제소 국가의 일방적인 제소의 경우에도 피제소 국가가 그의 관할권 성립에 관한 동의가 없는 한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동의를 기능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이 확대관할권 제도가 일단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런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런 일방적인 소송제기의 시도를 보다 명확하고 공식적인 것으로 되게 만들어서 묵시적 동의를 부당하게 중요시 되는 것을 예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그 사건 총명부에 등재 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다른 절차적 소송행위가 진행되기 전에 피제소 국가가 명시적으로 관할권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규칙 제38조 5항을 ‘묵시적 동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규정(36조 1항)이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한, 재판소 규칙으로 재판소 규정에 반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입법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78년 개정 규칙은 묵시적 동의를 관할권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지는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본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에 관심을 가집시다.〉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독도주인은 주인이다. 월드컵 축구 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그런데 독도는 관심이 없다. 독도행사에는 1천명도 잘 모이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있으면 독도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과 공동수역이고 세계 대다수 지도는 일본해에 일본이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70%는 넘어간 셈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 ×요? 독도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독도운동에 참여 하세요.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편집자〉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있으면 정치인이 잘 하면 국민들이 독도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힘도 없고 정치인이 잘 못 하고 국민도 안 하면 나라가 잘 못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2,000만명이 서명하면 된다.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 · 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 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
보낼곳 : 47825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 부원A)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100명이상 서명자는 증서를 드립니다. 서명받아 보내주세요.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황당한 日 중학교 입시 모의고사 “독도 불법점거 국가 골라라” 출제

도쿄=김수혜 특파원 입력 : 2016.06.21 03:00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기술,
학생들에게 틀린 사실 주입시켜



▲ 전문가들은 정부·학교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 민간 출판사가 판매한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일본 초등학생의 중학교 입시 모의고사에 나온 독도 관련 문제. '다음 중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택하라'는 문제 아래 러시아·중국·한국·북한 등이 보기로 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치르는 모의고사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동일본 지역에 있는 한 출판사가 낸 이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다음 중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택하라'는 내용으로 돼있다. 보기로는 러시아·중국·북한·한국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한국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大阪) 등지 학교에서 이 시험지로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모든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있다”면서 “(이번에 독도 문제를 낸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2014년 1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그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듬해에는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올 들어서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이 실렸다.

조선일보(지면상 삭제)

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 일이 생기면 -2편

http://cafe.naver.com/docdoinkorea/4841

그러나 해양경찰청장도 무기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비무장으로 들어오는 민간 선박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물대포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다. **그 동안에 우리해군과 민간단체는?** 우리해군 큰 배 독도호가 (1만5천톤급) 급파명령이 내려서 독도로 향해 중이다. 정부는 또 북과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1만5천톤급 화물선을 주게 되고 북과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을 하고 독도로 출발 하였다. **또 한편 바다에서는** 일본정부도 독도 주변 해상에서 흑 일어 낚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을 예상하고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오기도 주변으로 급파하며 해상보안청소속의 순시선들도 공동어장으로 급파한다. 삼봉호와 그 외 1천톤급 해양경찰 함정들과 다케시마호가 마주 보게 되었다. 장소는 독도영해와 공동어장 경계지점이다. **삼봉호 함장=>** “일본인들은 독도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 돌아가라!” **다케시마호=>**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데 왜 한국경찰이 막으려 하는가?” **삼봉호 =>** “독도는 한국 땅 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호=>** “한국경찰이 있는 것은 불법점거다. 한국경찰은 물러가라”며 다케시마호는 독도를 향하여 속도를 가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독도영해를 다케시마호가 들어서고 있었다, 삼봉호와 우리경찰 함정에서는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하고 독한 왜놈들 그대로 밀고 들어온다. 우리 경찰은 총을 겨누며 일본의 선박에 물러가기를 종용한다. 다케시마호에서는 쏠 태면 쏘라는 식이다.(참고 순수한 일본인은 일본 사람이며 극우파를 왜놈이라 칭함) 그러나 쏘지 못 한다. 발포 명령이 없었기에.....독도로 향한 북과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선박이 다케시마호와 마주하여 북과공작원 출신=> “우리는 너희들의 독도침략을 막으려고 온 한국국민이다! 돌아가라!” **다케시마호=>**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다. 한국인들이 물러가야 한다.” 독도해상에서 일본 배와 북과공작원 출신을 태운 배가 부딪히고 공작원출 신의 애국자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다케시마호로 뛰어 들었다. 700명의 애국자

와 800명의 일본극우파들의 싸움은 시작되고 머리가 터져 죽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사상자는 쌍방이 600여명이 나게 되는데.....,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해상 보안청 경비정들이 독도근해에 오고..... 우리의 해군함정도 독도 근해에 모여서 서로 언제 함포를 쏘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때 국제사회에서는** 미 백악관에서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라는 연락이 세계 각국으로 방송을 통하여 전달된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정상들이 평화적 해결이 좋다는 박수를 보내게 된다. [평화적 해결은 어떻게 해야 평화적 해결이 되는가를 생각 해 보자.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면 되고 한국이 일본 땅으로 인정하면 되고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독도를 한.일 공동 것으로 한다면 평화적 해결이다. 그러나 교과서 일본 땅으로 수록하여 가르친 일본정부가 한국 땅으로 인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온 국민이 우리 땅 인 것을 아는 한국 정부도 일본 땅으로 인정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독도를 한.일 공동 것으로 합의를 한다면 우리는 독도 절반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동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평화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재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여?야당에서는 재판에 질 염려도 있으니 재판은 말아야 한다는 측과 재판을 안 하면 국제적 고립을 면 할 수 없으니 재판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장담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10만 양병 론을 무시한 선조임금이 의주까지 피난을 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에 동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립될 찌라도 재판을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과 전쟁을 할 것입니까? 이글을 읽은 당신의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결론** 일본과 분쟁을 염려하여 우리 땅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나요? 일본을 무서워 말고 우리 독도를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못 한다면 ‘국제 법으로 점점 불리해 진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 합니다. 우리 국민이 망 합니다. 독도를 지키려면 독도의 관련법을 3면 서명운동 많이 하면 고쳐질 것이고 고쳐지면 더 좋을 것입니다. 회원 가입 하시어 같이 합시다.

독도소식지 24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안녕하세요.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를 우리역사는 말 해줍니다. 징용과 위안부. 공출.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측 가입원서를 보시고 가입 해 주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 상 훈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연락처	이메일	사진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